



# ‘뒷심’ 뒤에 ‘밀당’ 감독

## 베테랑엔 존중과 배려로 선수수범 이끌고 신인들엔 ‘불꽃 카리스마’로 승부욕 자극

KIA의 뒷심 야구에 ‘두 얼굴’의 사령탑이 있다. 2015시즌 KIA의 야구는 ‘뒷심’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지난 29일 필의 끝내기 안타 등을 앞세워 최다 끝내기 승(7)의 팀이 됐다. 7위 자리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는 있지만 유력한 9위 후보였던 KIA다. 무엇보다 끝까지 가는 야구로 9회 경기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혹시나 하는 기대로 팬들은 경기장을 쉽게 떠나지 않고 있다. 29일 이적 후 첫 승을 기록한 베테랑 김광수(34)는 “기술적인 변화는 없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큰 것 같다”고 최근 활약에 대해 언급한 뒤 “팀의 일원이라는 편안한 느낌으로 야구를 하고 있고 감독님께서도 신임을 해주신다”고 김기태 감독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 김원섭(36)도 “감독님 덕분에 야구를 포기하지 않게 됐다”는 소감을 남겼다.

베테랑을 휘어잡는 힘은 존중과 배려다. 김 감독은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10년 이상 프로의 경험이 있는 선수는 그 노하우와 실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시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줬다. 베테랑들이 그 믿음에 보답하고 있다. 경기장 안팎에서 고참들의 선수수범이 이어지면서 후배들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무조건적인 배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광수는 “후배들보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오래 훈련을 하라”는 특명을 받았다. 고참들에 대한 배려,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배려도 빼놓을 수 없다. 불펜 포수 등 훈련 보조 요원들도 김 감독에게는 소중한 선수들이다. 캠프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해 이들을 챙겼던 김 감독은 올스타브레이크에 앞서 조용히 상품권을 선물하며 격려했다. 부상으로 원정에 동행하지 못했던 불펜 포수에게 “부상 사실을 몰랐다. 감독이 챙기지 못했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한 일

도 있다. 베테랑을 움직이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경험 부족의 젊은 선수들을 움직이는 ‘진짜’ 카리스마도 있다. 김 감독은 공격적인 플레이·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문하고 있다. “공격적으로 승부하라. 플레이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패배는 내 탓이다”는 게 김 감독의 이야기. 공격적인 주루와 피장을 강조했던 김 감독은 이에 부합하지 못한 플레이를 보였던 내야수 강한울과 투수 심동섭에게 말소 없는 2군행을 명하기도 했다. ‘두 얼굴’로 선수단을 끌고 밀면서 싸움닭을 만들어가고 있는 김 감독은 강한 승부욕으로 쓰리피트 라인 행위를 위해 그라운드에도 뛰어다니고, 4루수 시프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선수들은 승리를 위한 감독님의 노력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다. 올 시즌 3번의 끝내기 쇼의 주인공이 된 필은 “올 시즌은 지고 있더라도 모두 끝까지 해보려는 모습이다. 달린 덕아웃 분위기로 9회 선수들이 집중해서 팀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KIA의 뒷심 야구에 대해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박찬호 “끝내기 5차례 경험한 내가 승리요정”

### 덕아웃 T 특·톡

▲태어나서 가장 빨리 달렸어요 = 이흥구의 인생 주루였다. 29일 KIA는 3-4로 뒤지던 9회 2사 만루에서 필의 끝내기 안타로 5-4의 승리를 거뒀다. 3루에 있던 동점 주자 김다원이 넉넉하게 홈을 밟은 뒤 사람들의 시선은 흥으로 쏠렸다. 2루에 있던 이흥구가 홈에 들어와야 경기가 끝나는 상황. 사람들의 격정과 달리 이흥구는 빠르게 홈에 들어오면서 팀의 끝내기 승을 완성했다. 이흥구는 “태어나서 가장 빨리 달린 것 같다”며 승리를 기뻐했다. ▲통쳤지 = 감독을 웃고 울게 한 박찬호였다. 2년차 고졸 내야수 박찬호는 29일 SK와의 경기에서 9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1할 초반 타율에 머물러 있는 박찬호지만 이날은 볼넷을 골라내

고, 안타도 때리는 등 모처럼 만족스러운 타격을 했다. 하지만 수비와 주루에서 실수가 있었다. 김기태 감독은 “안타도치고, 볼넷도 고르고 좋은 공격을 해줬다. 그런데 약속구도 했고 주루를 하다 공을 발로 찼다. 통쳤다”고 웃었다. ▲현충이 전용입니다 = 1승, 1승이 간절한 코칭 스태프다. 30일 전날과 다른 고글을 쓰고 등장한 조계현 수석코치. 이유를 묻자 “그건 (양)현충 전용이다. 그 고글을 쓴 날 현충이가 완봉승도 거두고 자꾸 이기더라. 그래서 현충이 등판 날이면 그 고글을 착용하고 있다”고 미소를 지었다. 시즌 초반에는 김기태 감독이 승리 징크스로 한 동안 빨간 목 플라 티셔츠를 입고 다닌 적이 있다. ▲감독님이 아셔야 할 텐데 = 끝내기 세리머니에는 빠지지 않는 박찬호다. 올 시즌 KIA는 이를 연속 끝내기 승을 만

들어내는 등 7승을 끝내기 경기로 장식했다. 이 중 5승의 현장에 있었던 박찬호. 올 시즌 18경기 출전에 그치는 등 1군에 머문 시간이 적었지만 5차례나 끝내기 세리머니를 경험했다. 박찬호는 “반트 실수 등을 했던 두 경기에서 선배들이 끝내기 승을 만들어줬다. 5번이나 끝내기 승리를 경험했다. 승리요정인 것 같다. 감독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쉬어쉬어 = 훈련을 하겠다는 선수와 쉬라는 코칭 스태프. 30일에도 짐통더위가 계속되면서 평소보다 KIA의 훈련은 늦게 시작했다. 그럼에도 선수들의 체력이 격정된 코칭스태프였다. 김원섭이 일찍 방망이를 들고나오자 황세완 타격코치는 “쉬어쉬어”라는 말로 김원섭을 실내로 들여보냈다. 이흥구에게도 “실내에서 먼저 치고 오라”며 선수들의 체력 관리에 공을 들였다. /김여울기자 wool@



0.370...3홈런...8타점

# 強風

## NL ‘7월의 신인상’ 성큼

### 내셔널리그 신인 7월 기록

선수	타율	홈런	타점
강정호	0.370	3	8
브라이언트	0.184	4	16
피더슨	0.176	1	5

## 강정호, 이를 연속 홈런포

### 3안타 폭발...팀 승리 견인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미국프로야구(MLB) 진출 후 처음으로 이를 연속 홈런을 쏘아 올렸다. 강정호는 29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의 타깃필드에서 벌어진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방문경기에서 5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0-0이던 2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트윈스 오론슨 선발 투수 에르빈 산타나의 스트라이크 북판에 물린 빠른 볼(시속 151km)을 잡아당겨 좌측 스탠드에 떨어지는 솔로 홈런을 날렸다. 전날 9회 팀의 8-7 승리를 이끈 비거리 132m짜리 결승 솔로포에 이어 이를 연속 나온 포물선으로 시즌 7번째 홈런이다. 이 홈런으로 강정호의 타점은 33개로 늘었다. 피츠버그는 10-4로 대승하고 3연승을 달렸다. 지난해 한국프로야구 KBO리그에서 홈런 40개를 친 강정호는 바리기에 데뷔한 올해 초반 들쭉날쭉한 출장 탓에 5월 3일에서야 마수걸이 홈런을 신고했다. 이후 3루수와 유격수로 불박이 출전 기회를 잡은 뒤 심심치 않게 정타를 터뜨린 그는 이달에만 홈런 3방을 몰아쳐 메이저리그 첫해 두자릿수 홈런 달성에 성큼 다가갔다. 강정호는 7회에도 1루수 감습 안타로 출루해 두 경기 연속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치고 9회에도 내야 안타를 보냈다. 5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으로 경기를 마친 강정호는 시즌 타율을 0.295(268타수 79안타)로 끌어올려 3할 진입을 앞뒀다. 멀티 히트는 시즌 24번째이고, 3안타 경기는 시즌 5번째다. 이달에만 타율 0.370(81타수 30안타), 홈런 3개, 8타점을 올린 강정호는 내셔널리그 ‘7월의 신인’ 수상을 향해 막판 스퍼트에 들어갔다. 기분 좋게 경기를 시작한 강정호는 4회에는 3루 땅볼로 잡혔다. 5회 득점 찬스에서 삼진으로 돌아선 강정호는 7회 1루수 쪽으로 감습 안타를 날려 두 번째로 1루를 밟았다. 미네소타 1루수 조 마우어가 글러브를 땀지만, 이를 맞고 타구가 뒤로 튀었다. 강정호는 9회 무사 1루에서도 3루수 쪽으로 내야 안타를 날렸다. 상승세를 탄 강정호는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로 옮겨 30일부터 신시내티 레즈와의 방문 4연전에 출전한다. /연합뉴스